

과 유 불 급

2022년 6월 아주햇살이 쨍쨍한 어느 날....“깽!” “으와아아 아
얌!”등 엄청난 비명이 들리는 곳에 김민재와 그의 가족들이 간다.

“우헤헤”김모씨는 롯데월드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. 맞다.그
수많은 비명이 들리는 짜릿한 그 곳, 바로 롯데월드다. 아무튼 김
모씨와 그의 일행들은 티켓팅 하는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...그때
그들은 알아야만 했다. 그날은 말 그대로 ‘과유불급’이 떠오르는 날
이란 걸....

아무튼 그들은 힘들게 롯데월드 입성 후, 시간 절약을 위해 후룸
라이드와 오르락내리락(?)을 분할하여 줄을 서기로 했다. 그런데
후룸라이드줄을 앞잡아 봤는데 줄의 끝이 보이지 않자, 그들은 1시
간 동안 기다린 후룸라이드를 버리고, 오르락내리락을 타기로 했다.
그들은 재미 없을 거라고 역시나 앞잡아 봤지만 역시 실체는 오직
탄 사람만이 알 수 있던 것 이였다. 김모씨는 놀이기구를 타다가
엄청 졸았다.

그리고 그들은 하늘그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점심으로 김밥을
먹었다. 역시나 줄을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...김
모씨는 하늘그네가 덜 무서워서 재미있었다고 한다.

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재미있고, 줄이 짧은 것을 찾아 헤맸다.
그러던 중